

[보도자료]

한국오가논, 실무 경험부터 진로 탐색까지 지원하는 ‘약대생 인턴십’ 성료

- 4 개 대학 약대생 16 명 참여...허가·약물감시·의학부 등 제약산업 주요 부서에서 실무 경험
- 15 주간의 직무 체험과 공동 프로젝트 통해 폭넓은 경험 제공하고 진로 탐색과 성장 지원
- 약사 및 현업 전문가와의 교류부터 ESG 캠페인 참여까지, 직무 이해 제고 및 환경보호 실천

서울, 2026 년 10 월 26 일 –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은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6 일 밝혔다.

2022 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5 회째를 맞은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삼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4 개 대학에서 선발된 총 16 명의 약대생이 참여했다. 인턴십은 7 월부터 10 월까지 약 15 주간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허가, 약물감시, 품질, 의학부, 마케팅, 대외협력 등 다양한 부서에서 제약산업의 주요 직무를 직접 경험했다. 이를 통해 약학 전공 지식이 실제 제약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향후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오가논은 부서별 실무 경험 외에도 학생들이 조직문화를 체험하고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인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와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인턴들이 각 부서 업무와 조직문화를 소개하는 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직접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서의 역할과 업무를 이해하고 협업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선배와의 만남’ 세션에서는 약사 출신 임직원들과 더불어 각 분야의 현직자들이 본인의 직무와 커리어 경험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진로 관련 질문에 답하며 실질적인 노하우와 조언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영업부 담당자와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약회사의 업무가 실제 의료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사내 ESG 캠페인에 참여해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인턴십에서 약대생 대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김가현 학생은 “15 주간의 인턴십에서 실무 경험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만들어주는 한국오가논의 조직문화였다”며 “이를 통해 뛰어난 역량뿐 아니라 진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으며, 앞으로 제약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오가논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총괄한 인사부 오지은 차장은 “약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현직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인턴십은 한국오가논 구성원들에게도 학생들의 열정과 새로운 시각을 통해 익숙한 업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학생과 기업이 서로 배우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오가논 '약대생 인턴십' 단체 사진